

“늦어도 납월 팔일까지는 一大事 해결하소”

임오년 동안거 결제 법어

법어전문 www.buddhanews.com

등에진 무거운 짐 내려 버리면 본래 아무 일 없이 허공과 같을 것

월하스님 (영축총림 방장)



월하스님(영축총림방장)

凱來巖飯
倦來眠(기한
객반권래안)
只此修行
玄更玄(지차
수행현강현)
說與世人
深不信(설여
세인흔불신)
御從心外

어려. 見之求之(먹지구지)하면 難可得(난가득)이라. 千擔萬負(천담만부)를 都放下(도방하)하면 本來無事(본래무사)하여 如虛空(여허공)이라. 찾아보고 구하면 얻기 어려움이라. 등에 진 무거운 짐을 내려 버리면 본래 아무 일 없이 허공과 같을 것이다.

四方天地虛豁豁(사방천지허활활)
十方世界更何道(십방세계경하유)
虛空拍手(허공박수)라리리
石獅子樂舞不休(석사자낙무불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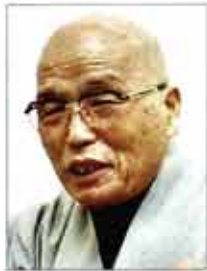
사랑정지가 텅 비어 트였거나 사랑세계가 또 어디 남았는가. 허공이 손뼉 치며 라리라 노래하며 돌사자가 즐겁게 쉬지 않고 춤을 추도다.

배고르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니 다만 이 수행만이 묘하고 심오한데 아무리 밀려주어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고 모두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고 있다. (중략)

時會大眾(시회대중)은 다시 한 번 잘 들

머리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고 머리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보성스님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조계총림방장)

여러분이 세간의 모든 의무를 다 버리고 출가한 것은 오직 견성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한 때 문인 줄 아는 데 과연 서원을 성취한 이가 얼마나 있는지 상허 못했더라도 獲寶忘寶(패침망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남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참으로 궁금하오. (중략)

春雨餘(춘우여)와 浙江潮(절강조)가 同

耶 不同耶(동아 부동야아 鼻頭望明月(거두망명월)하고 垂頭想故鄉(수두상고향)이로다

춘우여와 절강조가 같은가 같지 않은가. 머리를 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고 머리를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금일 결제대중은 늦어도 금년 臘月(납월) 팔일까지는 입대사를 해 마치고겠다고 굳게 맹서하고 열심히 공부하소. 공부해서 견처가 생기거든 선지식을 찾아 羅羅講誦(라라강송)하거나 조사 여록을 살펴서 철저히 점검해야하오.

古人(고인)의 말씀에 威音王佛(위음왕불) 이후에 無師自悟者(무사자오자)는 天然外道(천연외도)라고 했으니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그르치지 않기를 바라오.

미루지도 망설이지도 말고 올 결제안에 保任에 들기를

지허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선원장)



지허스님(태고총림선암사선원장)

千山萬里風 本是動無根(천산만리풍 본시동무근) 본시동무근 板齒透中天 此物提靈真(판치투중천 차물성령진) 무수한 신에 무수한 바람은 본래 움직이는 근원이 없거나 판자가 하늘을 뚫은 것은 이 불견이 참으로 밝고 신명스럽기 때문이네. (중략)

장구만 맞하면 다행입니다. 장구에 따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져 맞만 합니다.

말로만 맞하는 것이 아니라 맞하는 사람의 뜻이 모여 諸佛祖師(제불조사)를 육되게 합니다.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결제와 해제를 정해둔 것은 다만 공부하는 마음을 다시 추스르지는 것뿐이지요. 동녘에 해가 뜨면 아침이요 서녘에 해가 지면 저녁인 것은 하늘땅 열린 이래로 다름이 없는 하루임에 꼭 같습니다.

천황도오선사가 심요를 가르쳐 주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지만 이를 보지 못하고 깨치지 못한 것은 용담의 눈이요 수행입니다.

지금도 천황도오선사의 심요가 바늘 꽃을 틈도 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루지도 망설이지도 말고 올 결제안에 꼭 이 심요를 보시고 용담승선사처럼 保任(보임)에 들기 바랍니다.

불법 시끄럽고 절 짓기 좋아하니 청정한 견해가 산산이 부서지도다

원담스님 (덕송총림 방장)



원담스님(덕송총림방장)

夜月有輝 澄巨浸(야 월유휘징거침) 半夜琴傳 萬壑泉(반 야금전만학천) 坦然心地 元無物(탄 원무물)

이것이 무슨 도리인고! 이 것은 달 밝은 소식 아니라 오늘이 자리에 모여 있는 대중들 각자의 마음을 밝히는 소식이니라. (중략) 釋迦老子(석가노자)와 帝釋天王(제석천왕)이 안 뜰에서 다투니 불법이 정히 시끄럽고 절 짓기를 좋아한다하니 청정한 견해가 산산이 부서지도다.

萬里平田無寸草(만리평전무촌초) 淸風那更借休憩(청풍나경자휴계) 一片之地建草庵(일편지지건초암) 是速毀速敗之地(시속전속패지지)

만리 평지에 한 치의 풀도 없어 맑은 바람 여찌 다시 쉬어가리 한 조각 땅 위에 초암을 세우니 이에 속전속패의 땅이네.

밤 달은 광채가 있어 깊은 못 밝아지고 밤중의 거문고는 모든 끝의 계울소리를 전하니. 평탄한 마음자리엔 원래 아무것도 없고 한 조각 身心(신심)은 물가에 어린 달 같네.

조계종 종회, '봉은사특위' 구성 감사

특 위 "3년8개월간 기도접수금 등 66억 누락"

봉은사 "행정착오에 따른 의혹...해명자료 갖춰"

사찰 재정 수입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봉은사에 대해 조계종 종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감사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폐회된 조계종 제155회 정기중앙총회는 총무, 재정분과위 등 총회 7개 분과위 위원장 등 9인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특위는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봉은사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종회에서 종공, 법안, 장석스님은 종책질의를 통해 "총무원 기획실 감사와 종회 재정분과위 감사를 종합해 볼 때 불사금과 불전금 등의 재정수입 가운데 상당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봉은사 특위 소위원회 위원장 법안스님은 원혜스님이 주지로 재임한 3년8개월 동안 △각종 축원기도 등의 접수금 4억원 △기재 사용금 4억7천만원 △응향각(불교용품 판매점) 10억원 △보우당 불사 약 20억원 △초파일 연등 약 12억원 △불전금 약 16억원 등 모두 66억7천

만원의 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항목과 액수를 제시했다.

그러나 봉은사는 20일 종회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봉은사는 기도 접수금은 행정착오로 인한 의혹인 의혹을 해명할만한 자료가 준비돼 있으며, 기재 사용금이나 응향각 수입 역시 누락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우당 불사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용역회사인 화영건축에 의뢰해 공사비에 대한 감리를 받아 총무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연등과 불전금이 누락됐다는 의혹은 명확한 근거없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은 "장부처리 등에 있어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재정수입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유용한 일은 결코 없다"며 "종회 특위 감사에서 충분히 밝혀져 봉은사 명예가 회복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3급 승가고시 내년부터 강화

조계종, 입교시험 통과해야 고시산림 자격

행자교육원 예산 지원

내년부터 조계종 승가고시가 강화되고 4·5급 승가고시와 행자교육원의 모든 예산을 종단이 부담한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법안)는 15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입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통과할 수 있었던 산림 형태의 3급 승가고시를 입교시험과 고시산림 두 차례의 과정을 거쳐야만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는 스님들은 교육, 포교, 중무행정, 계율, 복지, 홍보관리 등을 교과목으로 한 입

교시험(객관식 필기시험)에 합격해야만 승가고시산림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고시위원회는 또 구족계 수계산림과 함께 실시하던 4급 승가고시도 내년부터 분리 시행해, 교육과 평가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고시위원회는 이같은 개선사항의 세부요건을 확정된 뒤 내년 상반기 중 공고할 방침이다.

한편 조계종 제155회 중앙정기총회는 20년 넘게 교육자들이 부담해 온 행자교육원 및 4·5급 승가고시 입교비를 전액 종단에서 부담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3급 승가고시의 경우는 자격시험 성격이 짙다는 의견에 따라 제외됐다. 김철우 기자

케보받습니다

가시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건, 사고, 미담, 사연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확보 가능한 정보와 취재기사료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82-0022, buddhanews.com

아빠타코스

꿈을 ★ 이루십시오!

정신력을 키우고 기운 나간다면 귀마의 몸도 현실이 됩니다. 진정한 부유함 / 건강 / 성취 그것은 이미 꿈이 아닙니다. 하지만 강력한 프로그램 아빠타 체험해보십시오. 귀마의 소중한 꿈을 이루십시오!

예산어파트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far.com
세이어파트 센터 02) 782-0022 www.sayavafar.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이웃돕기 성금

1.불자님은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낼 계획입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2.내신다면 얼마정도를 계획하고 있는가?
①1만원 ②2만원 ③3만원 ④3만원 이상

설문 참여: 11월 28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8호 A판 8면에 실립니다.

탄·허·불·교·문·화·재·단

普光明寺 旧 자광사 주지 취임식 및 불사 회향 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본 사찰에서는 천불전과 적광전 및 대웅전 불사회향 법회 및 청아스님 주지 취임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코저 하오니 두루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02년 12월 1일(일요일) 오전 11:00
◆장소: 본 사찰 대웅전
◆문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649
전화: 042)822-9219(대)
팩스: 042)822-8304

행사안내

◆ 제 1부 (08:00): 점안식

◆ 제 2부 (11:00): 취임식 및 불사회향 법회

-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 사찰연혁소개
- 불사경과 보고
- 내빈소개
- 취임사
- 원영사 및 축사
- 청법가
- 법어
- 음성공양
- 사홍서원

◆ 제 3부 (12:30): 점심공양 및 대중화합토론회

· 주제 1: 불교대학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 장소: 적광전(3층)
· 주관: 불교대학 졸업생 중 등문회

· 주제 2: 탄어스님 조사전 및 성보관 어떻게 불사할 것인가?
· 장소: 다경실(종각)
· 주관: 안암·탄어 문도회

· 주제 3: 탄어스님 유훈 어떻게 계승 발전할 것인가?
· 장소: 대웅전(2층)
· 주관: 본 사찰 신도회

합장

한암·탄허 문도회 회주 인허/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전창열 / 오대산 월정사 주지 현해
탄허 장학회 회장 헤거 / 普光明寺 旧 자광사 사부대중 일동